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20:13)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한 계명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평생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이 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요약된 계명이예요. 무슨 말이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핵심만 담아 놓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 이 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계명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죠.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요, 살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폭력과 모든 죽임은 다 악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전쟁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요. // 예를 들어, 다윗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결국 살인 아닙니까? 그건 악한 거잖아요?'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 물론 성경은 전쟁 자체를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 전쟁 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잘했다고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형태의 폭력이 다 동일하게 악한 것일까요?"** //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폭력이 다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무장투쟁도 모두 잘못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 역시 그냥 살인자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모두는 - 드러내서 말하지 않을 뿐이지 -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과, 악을 '위해' 휘두르는 폭력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악을 제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 군대와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폭력 집단이잖아요.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공권력'이라 부르며, 무질서를 막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으로 여깁니다. 왜 그런 폭력이 정당화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6계명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살인하지 말라"에서 쓰인 '살인하다'(מָצַח, 라차흐, murder)라는 단어는 그냥 사람을 '죽이다'(하라그, kill)라고 할 때 쓰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죽이는 여러 동사가 있는데, 6계명에 사용된 이 단어는 - 전쟁에서 적을 죽이거나,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처형하는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죽임을 일률적으로 금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6계명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거든요. //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 안에서 '전쟁에 관한 규례'와 '사형 제도에 관한 규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6계명이 금하는 건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곧 불법적이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이 죄인 첫 번째 이유는 -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몸은 내 것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창 9:5) 내가 만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드시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 인간이 나고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죽여서도 안 되고, 타인을 내가 죽여서도 안 되는 거죠. 자살도, 살인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둘째,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가 강하든 약하든 키가 크든 작든, 똑똑하든 아니든, 돈을 벌든 못 벌든 - 어떤 모양, 어떤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관계없이 - 사람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이 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건 사람을 향한 공격은 결국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자기 영토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라 곳곳에, 특히나 국경 지역에 왕의 형상들을 두었습니다. 석상이나 부조상 같은 것들을 두어서 '이곳이 내 영토다'라는 걸 표현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지도자의 얼굴을 다 알지만, 당시에는 TV나 인터넷 같은 게 없었으니까 -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자신의 형상들을 곳곳에 뒀던 거예요. //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형상을 막 두들겨 패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그걸 지나가는 왕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상을 공격했을 뿐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형상을 향한 공격은 곧 그 형상의 원래 형태를 향한 공격이니까요. //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얼마나 유용하든 -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러므로 존귀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함부로 여기거나 공격하거나 'it'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 5:21-22)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이 본문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라가', '미련한 놈' 같은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표현이 있죠?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직역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놈아!", "쓸모없는 놈아!"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욕도 아니구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 "아무것도 아닌 놈아!"라고 말로 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 예를 들어, 몇 명의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눈치 없는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가 입만 벌리면 분위기가 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교양인이니까 “야, 너 저리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대충 듣고 넘기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그게 ‘라가’입니다. “얘야, 너는 우리의 즐거운 대화 안에서 유용하지 않단다. 너는 가급적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렴.” //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란 죄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가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때 깊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요 - 존재 자체를 부정당할 때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부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그 뿌리인 마음의 문제까지 보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살아가니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도 - 제6계명이 금하는 죄를 매우 폭넓게 설명합니다. 단지 살인만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 복수심, 시기, 욕설,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무관심, 심지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까지도 포함된다고 말해요. // 물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고, 무관심으로 외면하며, 차가운 태도로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에게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넌 항상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형만도 못하다.",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라는 말을 반복하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겠죠. 6계명 위반입니다. //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쉽게 단정해 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한 사람을 -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규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가'는 단지 욕 한마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그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상대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공동체 안에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라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6계명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사람의 존재까지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라가'의 마음, 곧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대하는 태도를 - 우리 안에서 끊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하지 말라'에서 끝나지 않죠. 6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역시 제6계명은 -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가르칩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화평을 이루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삶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리는요 사람들이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창녀도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문둥병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 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손을 내미셨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살리는 분이셨죠. //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존재를 인정해 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시 살게 하는 -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는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계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셨나요? 이번 한 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6계명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존귀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과 태도와 삶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